



양계업계 뉴스 초점

홍보팀

닭 뉴캣슬병 발생 주의보 발령

생산성 저하, 소비감소 악재 겹쳐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13일자로 닭 뉴캣슬병 발생 주의보를 공식 발령하였다. 이로써 뉴캣슬병 발생이 정부 차원에서 공식화 되었는데 지난 1월부터 전북 부안군에서 사육되던 육용종계에서 처음 발생된 이후 4개월만에 전국적으로 발생이 확대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주의보에 따르면 발생농장 대부분이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프로그램대로 접종을 하지 않아 발생하였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실시명령에 따라 뉴캣슬병의 경우 농가에서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있다.

계란 유통가격 조사 발표키로

표본조사 후 평균가격 발표

본회는 지난 4일 채란분과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계란 유통가격 조사 발표와 관련하여 유통업체를 선정한 후 가격을 조사하여 발표에 들어갔다.

이는 농장실거래 가격 발표 이후 도매가격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못해 납품시 기준이 없어 거래에 혼선이 야기되는 점을 감안하여 유통업계에서 실제로 납품한 가격을 조사하여 이를 평균가격으로 발표하므로써 지난 가격이지만 유통업자들이 참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산지 실거래 가격체계가 유지되도록 보완조치 차원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본회는 앞으로 양계속보를 주2회로 증량 발행하되 원활 경우 팩스로 전달이 가능해진다.

뉴캣슬병 보상금 지급 건의

보상 대상서 제외된다는 회신 보내와

본회는 지난 4월 28일자로 농림부에 닭 뉴캣슬병 살처분보상금 지급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지난 15일자 회신을 통해 정부에서 그동안 뉴캣슬병 발생농장에 대하여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는데, 뉴캣슬병은 예방 접종과 차단방역으로 예방이 가능하다는 사유를 들었으며, 또한 살처분 명령 당시 죽은 가축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질병 예방을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방약 지원과 닭 도축장, 닭·사료·약품 수송차량에 대한 소독과 혈청 검사를 통한 농가지도·계몽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회신을 통해 알려왔다.

양계산물 소비확대 방송사 협조 요청

방영 후 대폭 소비 감소

지난 달 양계업계는 뉴캣슬병 발생사실이 TV와 각종 신문 등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계란과 닭고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소비자에게 전달되어 사실상 소비가 격감하여 출하 가격이 크게 하락 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대해 본회는 지난 22일 각 방송사에 닭 질병 발생에 대한 기사가 방영되어 양계산물 소비가 침체되는 점을 감안하여 소비가 감소되지 않도록 홍보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협조 요청 당시 난가는 실거래 기준 특판이 47원대까지, 육계는 kg당 800원까지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닭고기 수급 및 유통실태 연구용역

수입육 소비경로 파악 위해

본회는 그동안 닭고기 수입량이 대폭증가하여 국내 육계산업을 위협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적절한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해 우선 유통실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수입된 닭고기가 어떤 경로로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가를 분석키 위해 지난 15일 건국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김정주 교수와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조사는 자조금사업으로 진행되는데 3개월간에 걸쳐 자료조사를 거쳐 닭고기 수급 및 유통실태를 분석하게 된다. 이 조사가 완료되면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수입 닭고기에 대한 공급 경로와 소비경로가 확실히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닭 질병예방 세미나 개최

뉴캣슬병 대처요령 중심으로

본회는 최근 뉴캣슬병의 발생이 증가하여 많은 피해를 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육계와 산란계를 구분해 지난 18일과 19일, 그리고 30일 3일간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육계는 한국제육협회와 공동주최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조류질병과 모인필 박사의 “최근 닭 질병발생 동향”과 송창선 박사의 “뉴캣슬병 발생동향 및 예방대책”에 대한 강의가 있었는데 분당 수의과학회관과 유성 유스호스텔에서 각 120여명이 넘게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산란계는 30일 충남대 농대 소강당에서 200여명이 참석하여 서울대 김선중 교수의 “가금인푸루엔자 예방대책”과 모인필 박사의 뉴캣슬병 예방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양계]